

-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후생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헌신기관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 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한만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손문옥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 각반 성경공부:**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3월12일 금요기도회는 제3여전도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간절한 기도의 밤으로
 1부는 말씀 2부는 기도회순서로 새롭게 진행합니다.
- 하루 교회숙직 실시:** 계속하여 숙직을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집전실, 카타쿰기도굴, 남여중보기도실에 온열난방 설치).
 > **담당자:** 주(김희중) 월(진영만) 화(김태석) 수(김용덕) 목(오광록) 금(유영만) 토(김영근)
- 보리떡운동:** 성도님들이 작성한 헌금을 보리떡 운동이라 명명했습니다.
 > 전성도님들은 보리떡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066-107-313157(광주은행)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 컴퓨터교육:** 매주 월,화,수요일 오전9시에 홈스쿨에서 컴퓨터교육이 있습니다.
 >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음악회:** 밀알심장재단에 주최하는 심방병어린이들기 사랑의 음악회가 본교회에서 3월21일(주) 오후2시30분에 개최됩니다.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 집회참석:** 전라노회 삼천교회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전도집회가 3월14일(주) 오후7시에 광주은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이옥화목사님입니다.
- 전도사고시:** 3월11일(목) 오전9시30분 노회회관에서 실시됩니다.
 > 응시 대상자는 당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예정입니다.
- 여전도사부임:** 이수월전도사님이 본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 전도와 심방사역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주일전도:** SFC, 아브라함, 리브가, 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주공아파트10단지).
 > 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인도로 실시바랍니다.
- 주일심방:** 김문옥 옥 룡 장로, 이봉순 문채숙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 입원성도:** 조복임집사(동아병원) 최봉주집사(성심병원) 박일순집사(성심병원) 김영숙모친(조선경권사 모친-아산병원) 육영란집사(서울대학병원) 김유정집사(전대병원)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한예수교 하남은광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26:46)

담임 교역자
손 중 기 목사
(010-7283-8291)

후생위원회 헌신예배

3월은 전도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옥 룡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객세중,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이은혜 · 김예슬
【마리아성가대】
 ◆대장:김문옥, 지휘:김유영(객지혜)
 ◆반주:김수경 · 계경숙

3/1-7 제123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3/1 교역자산상기도회(교역자, 복지팀)
 3/7 후생위원회 헌신예배
 SFC,아브라함,리브가,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
 3/14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여호수아,1남,1여,2여전도회 전도주일
 3/21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2남,3남,3여,4여전도회 전도주일
 3/28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 당회
 고난주간(29-4.2), 성금요일(2일)
 4남,5남,5여,6여전도회 전도주일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섬김이	인도자
10-17	이재희	아브	6	월곡동 586-14	952-1369	유수중	스스로
10-18	이주연	청년	41	월곡동 555-5	010-2559-5239	김건승	전순이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김성훈 ◆전도사: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홈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506-0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9-14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 준비 다같이 (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 부름 사 회 자
*개회 송영 성 가 대
*기 원 사 회 자
*찬 송 .. 23 (통23) .. 다같이
*성시교육 .. 십계명 .. 다 같이
*사죄확인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496 (통260) .. 다같이
기 도 1부 최상윤 장로

성경봉독 행2:42-47(신190)
찬 양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손종기 목사

“예수 생명 전도”

기 도 다 같이
찬 송 .. 502 (통259) .. 다같이
봉 헌 다 같이
감사기도 설 교 자
*주기도송 다 같이
*축 도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영상광고
새신자 환영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 찬송 .. 405 (통45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주일 오후 예배

[후생위원회 헌신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이현일 장로
설교: 문종승 강도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유영만 집사
성경봉독 / 행 20:35(신224)
특 송 / 후생위원회 일동
말씀선포 / 문종승 강도사
“나눔과 섬김의 삶”

헌 금 / 220(통278) / 김요상 장로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 주일 밤 성경 통독 -
오후 7시~8시 (창세기)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한만희 집사
설교: 손종기 목사

찬 송 / 433(통490) / 다같이
대표기도 / 양혜숙 권사
성경봉독 / 마 6:9-13(신8)
특 송 / 제21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이름이 거룩히 여김”

헌금기도 / 436(통493) / 임현옥 권사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 장로	1	김요상	7	13000		김부현	김요상	954-3319	겸면중앙교회/5만
	2	양혜숙	2	4000		허동숙	양혜숙	951-2437	서부은광교회/15만
	3	박봉례	5	8000	60	정영순	송희중	953-7579	장산중앙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 장로	4	교 회	6	10000		송미경	김태석	434-2827	연동은광교회/5만
	5	김희석	5	8000		이현일	이현일	952-5880	경동교회/5만
	6	윤 석	7	12000	100	전향남	이동만	953-0774	금호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 장로	7	조선경	5	9000		윤경순	조선경	952-1672	영광교회/5만
	8	박의하					박의하	954-4684	용산중앙교회/5만
	9	김길자	12	12000	20	김혜중	진영만	956-2902	노력도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 장로	10	김경애	6	6000		오영자	김경애	945-2713	남도시민교회/5만
	11	전윤선	7	11000	50	황생자	최상윤	384-8475	서림교회/5만
	12	손문옥	8	11000	80	이동식	김명관	961-9632	삼기중앙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 장로	13	강태석	5	6000	150	나채균	김숙경	956-5064	세계포도원교회/5만
	14	유지춘	6	5000		윤정희	서향임	951-2785	광주반석교회/5만
	15	최옥기	5	5000	80	이옥순	최옥기	952-7101	오치은광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 장로	16	정현아	6	17000		전순이	전순이	671-1109	오치은광교회/5만
	17	이봉순	4	6000		임순분	조윤기	954-3784	사랑의교회/5만
	18	교 회	5	12000	159	박동수	강성명	942-3919	심미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 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광덕교회/5만
	20	김홍순	4	8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연화교회/5만
	21	정종균	11	10000		양인숙	한만희	956-0484	운암평화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 장로	22	김문옥	4	5000	32	고진희	김문옥	954-2660	구름다리교회/5만
	23	김태호					김태호	01039778667	구름다리교회/5만
	24	우숙희	4	4000		이정순	김종철	953-9917	대전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 장로	25	서점순	3	4000		김은경	서점순	961-8640	대전교회/5만
	26	교 회	6	3000	36	안영철	안영철	01050437055	송정은평교회/5만
	27	손종기	2	3000	32	김덕수	손종기	962-3301	나주신광교회/5만
제10지구장 옥 통장로	28	교 회	5	5000		교 회	서진옥	413-5357	아가페교회/5만
	29	김막녀	5	9000	50	박순임	김성훈	952-3304	미선21/5만원
	30	교 회	5	4000		임춘진	임춘진	962-8516	남악신광교회/10만
제11지구장 김종철 장로	31	유영만					유영만	961-3477	남악신광교회/10만
	32	김용덕	8	14000		조귀명	김용덕	01026362114	군선교연합회/5만
	33	안수집사회					김영근	956-1538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제12지구장 최지혁 부목사	34	권사회					임춘진	962-8516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35	중등부	5				손성은	962-6487	오일환선교사/5만
	36	고등부	6				유화평	961-3477	오일환선교사/5만
제13지구장 최상윤 장로	37	은광어린이	7	10000			임현옥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8	아남예수	8	10000			옥송주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9	영연스쿨	3				방정원	954-2787	CBS기독교방송/10만
제14지구장 손종기 목사	40	대학부	6				김진선	953-3909	열방네트웍/5만
	41	청년부					김진송	961-9632	열방네트웍/5만
	42	교 회	6	16000	86	교 회	최지혁	385-1320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3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옥 통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김요상 장로 ◆2부 최상윤 장로 다음주일 오후 기도: 이동만 장로 다음삼일사회특송: 김문옥 장로(22구역) 다음삼일기도: 최옥기, 헌금: 장현자 권사 금주 3/13(토) 청소: 여호수아, 리브가 이번주(7) 식사당번: 12, 13, 15 구역 다음주(14) 식사당번: 16, 17, 18 구역
	2부	김문옥 최상윤 한만희	
안내	이동만 서진옥 박동수 박종관 이견옥 고용주 이봉순 조선경 김숙자 권화숙 김순심 강춘자 정영옥 정순영 신은숙 송숙란 양선숙 우숙희 전운선 양재숙 황애자 임순분 김경애 조정화 박경희		

오늘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뜻, 백성의 지도자)는 그 이름대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최고회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세 당시의 70인 장로회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 유대사회의 최고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였습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것에 착안해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대전통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로마통치 하에서도 존속되어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보다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법의 결정과 집행이 통합되었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요즘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등급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1.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의문들이 산재합니다(요3:2).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성의지도자로서 앞으로의 자기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남보다도 깊은 우려를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누군가 자기를 지도해주고 조언해 줄 멘토(mentor)가 필요했습니다. 즉 랍비와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에 그는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낮에 예수를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온 것에도 암시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어떤 의문들을 갖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의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요3:3).
니고데모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 다. 영적인 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여겼습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인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칭찬과 격려를 해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3:3),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요3:5).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보람과 의미, 행복과 기쁨이 바로 이 통치에서 흘러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나 의문도 온전히 해결될 수 없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제외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3.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요3:16).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물로 상징되는 회개와 성령으로 상징되는 믿음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것입니다(요1:12).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두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자기질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증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증언’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증언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하나님의 나라)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설

교

요

약

예수 생명 전도(행2:42-47)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 의 선물도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전도인 것입니다(행1:8,마28:18-20).

1.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전도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4:19, 막3:14-15, 막16:19-20, 마28:18-20)
2)전도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을 계속 고백했다(빌3:1-20)
(2)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골2:2-3)
2. 전도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합니다.
1)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1) 그리스도는 창 3:1-20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선지자).
(2) 그리스도는 롬 3:23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제사장).
(3) 그리스도는 요 8:44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왕).
2)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1)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용서 받은 사실을 체험한자
(2)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증거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자
(3)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체험한자
3. 전도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 마 16:13-20 / 확실한 신앙고백
(2) 히 4:12 / 말씀의 오묘함을 체험
(3) 행 1:1-9 /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 요 16:24 / 기도 응답의 증거를 맛봄
4. 전도자는 주위(불신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불신자 - 원인 / 창 3;1-6, 롬3;23, 요8:44, 마12:28-29
(2) 엡 2:1 / 살리는 운동
(3) 엡 2:3 / 해방시키는 운동
(4) 엡 2:6 / 참 소망 회복 운동
5. 예수 생명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습니다.
1) 기도 응답의 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행11:19-21,23).
2) 가정, 직업,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3) 교회가 부흥됩니다. (1) 행 2:42-47 / 초대교회, 민족을 살립니다.

맺는 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하는 일ियो. 최고 최대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목적이됩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건을 구원사역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 것이요, 새 힘을 얻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가 축복을 받아서 이미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할 것도 없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거기에는 온갖 진리가 통째로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마치 동굴 안에서 혼자 힘으로 태양을 발명하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거의가 성경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게 되면 사람이 혼자서 1,000년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더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완성되는데 약 1,600년이 걸린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들어가서 읽혀지는 곳에는 온갖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정치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육을 하면 분명히 사회와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 읽혀지는 곳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부흥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통하여 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술은 꽃을 피우고 복지가 향상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연구되는 곳에 의학이 발달하고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 천문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만민이 평등해지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범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 병원들이 생기고 고아원과 양로원이 생기고 적십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미신이 사라지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도의 현자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을 두고 신약성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지도로 말미암아 조국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신약성경을 읽다가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바로 읽으면 그의 속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重生 Regeneration) 즉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나기」라는 말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습관 속에 굳어지면 개선이나 변화가 실로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담에 팔자(八字)를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타고난 운명이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표현하는 여덟 글자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믿는 동양철학의 용어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이 태어나게 되어 그러한 타고난 운명에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팔자를 고치는 길도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곳에서는 개인의 팔자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주와 천성이 완전히 목수 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다듬고 깎고, 자르고 집을 짓는 것이 아주 적성에 맞았습니다. 목수가 무엇을 만드는 재미는 비단 돈을 벌기 위한 것 뿐 만이 아닙니다. 일 그 자체에 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목수가 되기로 마음먹고 정식으로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 일을 하다가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었는데 목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목수가 목사로 변신하려면 그야말로 팔자를 고치지 않고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자가 「사」자로 바뀌어서 목수가 목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데는 오직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확실하게 팔자를 고치려면 성경을 읽고 거듭나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운명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십년 삼월 칠일
담임목사 손종기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감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갈	이
대 표 기 도	이	현	순
특 송	제 3 여전도회	일동	
설 교	손	종	기
개 인 기 도	다	갈	이

합심기도제목			
교 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 도 전 도	●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0년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게 하소서		이은숙 집사
	● 2010년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개척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박미정 권사
직분	● 복지관련립과 복지사역을 위해 지혜, 인재, 물질 허락 하소서		
교육 기관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방정원 권사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국가 선교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황정선 권사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성도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합심기도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교역자 : 문종승 전순이 최지혁
 장로 : 옥 룡 김병엽 김명관 윤 석 송희중 진영만
 안수집사 : 김재한 오광록 유영만 조윤기 최재현 한경택
 권사 : 임현옥 김재림 진윤희 이정자 김동해 김순심 최옥기 유금례 황정선
 집사 : 양정순 이남순 이현복 신은숙 임연옥 김변순 이동식 계경숙 김담호 허성복
 김태호 손동옥 강옥선 이병욱 김영례 김선자 송숙란 김경식 김경애 양선숙
 진준호 이영희 윤희수 김달삼 최성자 최경순 정종균 이선화 정수경 김순자
 오수미 강성명 손상원 옥승주
 ♥♥♥♥ : 김광수 유병남 이성노 오성현 조성준 김예지 오성범 정순비 무명4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전순이 김성훈
 장로 :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장기술 최재현
 권사 : 임현옥 유금례 박경남 김숙자
 집사 : 기연임 정도경 민찬임 옥승주 정영순 고진희 박종관 양선숙 김선자 신철균
 황애자 유수종 강춘자 김영례 김효식 오금례 이현복 손상원 원철희 이현진
 김지현 오남님 우숙희 김경식 백희숙

♥♥♥♥ : 조리라 정순비 전기순 정해정 이영선 이성노 이소영 이영희 문귀만 김애린
 이영선 노병호 박성구 무명5

● 선교헌금

교역자 : 서향임 최지혁
 장로 : 윤 석 김문옥 송희중 옥 룡
 안수집사 : 한경택
 권사 : 양혜숙 이귀님 김홍순
 집사 : 윤희수 김상규 양선숙 정정순 조정화 김담호 이은경 이동식 손상원 양정순
 ♥♥♥♥ : 이지훈

● 복지헌금

서향임 윤 석 송희중 옥 룡 임현옥 김숙경 김순심 김 란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영미 김재한 양재숙 황선우 이정자 김천대 김종철 조윤기 김숙경 이재연 이재성
 김영월 송희중 이영희 김홍순

꿈의 대가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 도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축구선수로 된 적이 있다. 경기 도중 내가 공을 잡으면 상대방 선수들이 별 때처럼 달려들었다. 아이들이 태클을 거는 바람에 몇 번 심하게 넘어졌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알뜰한 수를 쓰기로 했다. 공이 내게 오자마자 우리 편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했다. 나중에는 아예 볼이 오지 않을 만한 곳만 골라 다녔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달려드는 일도, 공을 빼앗길 일도, 책임질 일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편은 열 명이 뛰는 팀이 되었고 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선수로 뛰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열심히 뛰는 자에게는 시련이 닥친다. 꿈을 가지면 여러 가지 치러야 할 대가가 기다린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 꿈을 꾸지 않으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될 뿐이다.



꿈을 이루기까지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지만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다. 어미 닭이 21일만 품어보면 드러난다. 하나는 병아리를 낳지만 다른 하나는 썩어버린다. 밴쿠버 영웅 이승훈 선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됐다. 하지만 그는 올림픽 출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꿨다. 패배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난 이 선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7개월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꿈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축복하신다. 이제 꿈의 성취를 위해 땀과 피와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정상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넘어졌을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 넘어지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엄청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4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일자	요일	성명	비고	일자	요일	성명	비고
2/7일	주	박미정	010-3619-0362	5일	금	최상운	010-5059-8475
		이정자	010-5509-0809	6일	토	김요상	011-602-0724
8일	월	서점순	010-8944-8640	7일	주	김희중	010-5468-1670
		김숙자	010-2360-5214	8일	월	진영만	010-5605-2902
9일	화	김동해	019-406-2586	9일	화	김태석	010-8777-2827
		방정원	010-9474-2787	10일	수	김용덕	010-2636-2114
10일	수	진윤희	010-7488-9851	11일	목	오광록	010-7603-9851
		장미옥	010-7704-9917	12일	금	유영만	010-3629-3477
11일	목	문채숙	010-5643-0198	13일	토	김영근	011-638-1538
		양혜숙	010-6873-2437	14일	주	한만희	011-9739-0484
12일	금	김점자	010-6653-0559	15일	월	손문옥	011-9606-6487
		김숙경	010-8245-5064	16일	화	조윤기	016-681-3784
13일	토	허경자	011-9607-8475	17일	수	한경택	011-633-7200
		방봉순	011-605-3310	18일	목	장기술	011-9604-0577
14일	주	황생자	010-9877-1729	19일	금	최재현	010-6231-4589
		권화숙	010-7708-4315	20일	토	박의하	010-2231-4684
15일	월	김순심	010-7721-3238	21일	주	장승준	010-6609-2782
		유암덕	010-5339-1831	22일	월	이대남	010-2615-5064
16일	화	김정숙	010-2467-2113	23일	화	김재한	011-617-0571
		이귀님	062) 952-8590	24일	수	서진욱	010-5446-5357
17일	수	손종기	010-7283-8291	25일	목	이병권	010-6203-8640
18일	목	최지혁	010-3615-1638	26일	금	박동수	010-5602-7559
19일	금	문종승	010-7617-4070	27일	토	김용신	010-3008-6567
20일	토	김성훈	010-3827-7655	28일	주	임춘진	011-604-8516
21일	주	서항임	018-629-2785			김신자	010-7752-8667
22일	월	전순이	010-2999-7540	29일	월	서금자	016-9225-2602
23일	화	이준호	010-6280-8590			모순자	010-6610-5880
24일	수	김기태	010-6623-8667	30일	화	최옥기	010-4323-7101
25일	목	김문옥	010-2565-2602			유금례	010-9455-9579
26일	금	김명관	011-640-9608	31일	수	이봉순	016-9601-3784
27일	토	이현일	011-625-6945			황정선	010-4627-9608
28일	주	이동만	011-609-0774	4/1일	목	임현옥	010-3907-2360
3/1일	월	곽세종	011-9607-9883			장현자	010-8642-9883
2일	화	송희중	010-4370-7579	2일	금	조선경	010-5469-1670
3일	수	옥 룡	011-616-2360			김복희	010-5539-9919
4일	목	김종철	010-7735-9917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제 1 절 세례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 교회에 주신 것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례에 공통적인 것이지요.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 차례로 살펴봅시다.

우선 세례는 우리 믿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첫째,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에 쓰는 물 자체에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통해 용서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씻는다는 점에서 물과 비슷하게 때문에 세례식에서 피를 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는 그 용서하시는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세례 받은 다음에 짓는 죄 때문에 그 세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과거에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격려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후에도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주는 유익입니다.

둘째,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롬 6:4,5).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는 것을 표해준다는 것이지요(롬6:11).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욕이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성령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서 또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여 새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롬6:5). 그래서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딤후3:5)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뜨겁게 해줍니까! 마치 결혼 반지를 보며 자기와 한 몸 된 배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시고 기꺼이 우리와 결혼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례의 완성이고 또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간단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행8:16,19:5).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런 간단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모두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중생과 깨끗하게 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원인이시고, 아들은 질료이시며, 성령은 효과이시기 때문입니다.